

# “공공기관 공금증 풀어드립니다”…나주혁신도시 진로투어

### 나주교육지원청과 내일부터 진행...세지초·매성중 등 8개 학교 참여 홍보관 관람·진로 멘토링 등 프로그램 다양...워크북 배포로 효율성 ↑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나주교육지원청이 손 잡고 나주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나주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오는 5월 2일부터 세지초와 매성중 등 8개 지역 소재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진로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진로투어 프로그램은 나주교육지원청과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협력해 실시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젝트 중 하나로, 참여 학생들이 직접 공공기관을 견학하고 분야별(에너지·농생명·신산업) 기관의 특색을 살린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6개 중 8개 공공기관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참여 학생들에게 홍보관 관람, 분야별 강연, 진로멘토링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참여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농업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공금단이다.

진로투어 프로그램은 앞서 지난 2022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진로투어는 지역 소재 학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나주교육지원청이 제작해 배포한 '워크북'.

앞서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지난 2022년에는 금천중 등 나주시 소재 중학교 4곳만 참여했지만, 지난해에는 빛가람중 등 6개 중학교가 추가된 데 이어, 올해는 7개 중학교와 1개 초등학교 등 8개 학

교로 참여 학교 수를 확대했다.

참여학생 수도 전년에 비해 7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나주시 소재 6개 중학교에서 252명의 학생이 진로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반면, 올해 선정된 8개 학교에서 중학생 403명과 초등학생 25명 등 총 428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진로투어 프로그램은 오는 5월 2일을 시작으로 학교와 공공기관이 일정을 조율해 5월 9일, 5월 10일 등 총 3일에 걸쳐 진행된다.

또 참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별로 각각 공공기관 2곳과 매칭하고, 오전과 오후로 일정을 나눠 학생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앞서 나주교육지원청은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학교 측이 모두 모여 총 5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분야별 협의회를 열어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나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원활한 진로 탐색 및 진로교육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전에 '워크북'을 제작해 참여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워크북은 담당 교사와 교과 교사가 각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내용을 구성했으며,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전 학교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진로투어에 나설 수 있도록 담당 교사가 사전 지도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변정빈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나주형 진로·진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나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순창 도수터널 차수벽 철거...담양호 물길 열렸다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담양호 도수로 중점부서 통수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전남본부)는 지난달 29일 담양호 취입도수로 중점부서에서 열린 통수식 행사를 통해 순창군 구림보에서 담양호로 14년 만에 물길이 이어지게 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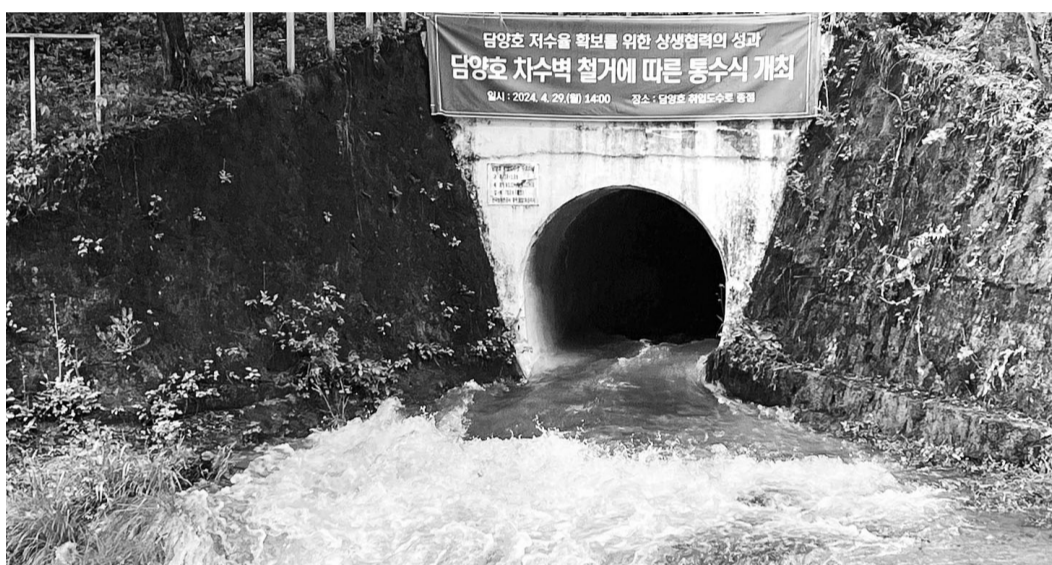
〈사진〉

앞서 담양호는 지난 1976년 준공 당시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을 통해 섬진강 지류 하천에서 일부 물이 유입되도록 조성됐다.

이에 따라 담양호는 담양군과 순창군 일대 6560ha를 수해면적으로 두게 됐지만, 담양호를 통해 유입된 물로 인해 순창군 소재 농민들이 가뭄 현상을 겪게 되며 차수벽을 설치해 물길이 끊겼고, 이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차수벽 철거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전남본부 등 유관기관들의 지속적인 설득과 지난해 봄 전남지역에 유례없는 가뭄현상이 지속돼 지난해 7월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간 물 분쟁이 종결됐다.

이에 전남본부는 지난 29일 차수벽 철거를 기념



하는 의미를 담아 순창에서 담양호로 물이 들어오는 도수로 중점부인 담양군 용면 용연리에서 통수식을 개최했다.

전남본부는 오는 5월 말까지 해당 도수터널에 취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수문을 설치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 취수량을 조절해 가뭄과 홍수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통수식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적 관점이 아닌 본질적 문제에 집중해 협력의 의미 있는 변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용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aT, 장애인 선수단 선전 기원 간담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영광스포티움 일원에서 열리는 '제32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공사 소속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격려하는 선수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T는 장애인 체육 발전과 고용향상을 위해 다양한 종목의 장애인 체육선수를 직접 고용하고, 이들이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 aT 선수단은 론볼, 역도, 당구, 럭비, 육상 등 종목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작년 전남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크게 선전한 바 있다. 이번 전남대회에는 역도, 육상, 당구 3개 종목에 7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기노선 aT 부사장은 "선수단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은 도전을 극복하는 공사 임직원 모두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라며, 선수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사는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김춘진 사장과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회장 명의의 감사패가 전달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경영난’ 한전, 희망퇴직 시행...“입사 4년차부터”

### 8일까지 접수...위로금 최대 1억1000만원 지급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8일까지로,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원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마련됐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6월께 발표한 한전 '2022년 경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 기관이 아니었지만,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해 정부와 조정 끝에 'C' 등급으로 상향되며 성과급 지급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유례없는 재무위기로 인해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반납 동의서'를 받고, 성과급을 반납받아 이번 희망

퇴직 위로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1억1000만원을 최대 한도로,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명예퇴직금의 50%를 지급하고, 20년 미만 직원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조기퇴직금(연봉월액의 6개월분)의 50~300%를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많아 희망퇴직 가능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중심으로 최대 80%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앞서 성과급 반납에 동참했던 직원들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는 근속 3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을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에도 재무 여건 악화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퇴직 외 경영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DN, NATO 주관 ‘락드실즈 2024’ 참여

한전KDN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주관한 국제 사이버공격방어 훈련 '락드실즈 2024'에 참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락드실즈는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NATO 3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온라인 상으로 방어·공격·법률자문·운영·기술지원·상황분석 6개 팀으로 구성돼 실시되는 훈련이다.

한전KDN은 올해 국내 에너지 기업 4개 기관을 대표하는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등을 포함해 총 15

명으로 구성된 연합팀으로 락드실즈에 참가했다.

특히 올해 락드실즈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아일랜드 연합팀'이 방어 역할로 참여해, 전력·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 방어와 최근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사이버 이슈 등에 대한 법률·언론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한전KDN에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화이트해커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3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2021년 락드실즈부터 4년 연속 참여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이은이 | 조선의  
퍼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